

음이 사라진 자리에 열반정적의 희열이 찾아든다

음악이 감동을 일으키는 이유

서우석 | 서울대 작곡과 교수

음악의 감동은 인간이 자연의 스펙터클 앞에서 느끼는 감동과 유사하다. 음악의 소리들이 만드는 청각적 인상은 자연의 경치만큼이나 정교하고 웅장하며 절묘하다. 자연이 성장하고 꽃피고 사라지듯, 음악 역시 태어나서 성장하고 꽃을 피운 다음 사라져버린다. 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음악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연주가 끝나면 소리는 없어지지만, 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낀다. 사진은 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장면.

음악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일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보자. 한적한 시골 산길을 걷고 있다고 하자. 풀냄새와 훈훈한 미풍이 없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들어오는 시골길의 모습만으로도 어떤 정취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평범한 체험들 가운데 마음속에 오래 남는 강한 체험이 있다. 해질 무렵 부석사에 올라 남쪽을 향해 서면, 읊하듯 펼쳐져 있는 산과 산맥을 바라보게 된다. 누구나 그 광경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낄 것이다.

청각적 인상은 자연의 경치만큼이나 절묘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악도 그와 똑같은 사연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악의 소리들이 그런 자연을 묘사하거나 그런 장면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되살리기 때문에 감동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음악의 소리들이 만드는 청각적 인상이 그런 경치만큼이나 정교하고 웅장하며 절묘하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다.

천천히 말해보자. 불교 철학이 미리 설명해버려 맥빠지는 일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보자. 우리는 자신의 몸 밖에 있는 세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인상들이다.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 불교 철학은 여기에 마음속의 의식(意識)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이 여섯 통로를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라 하고 육근(六根)이라 부른다. 의

(意)는 기억돼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意識)은 안식(眼識)에서 신식(身識)에 이르는 오식(五識)을 통솔하는 심장인 셈이다. 이 오식이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이다. 우리는 그 받아들인 바를 대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대상은 우리의 몸 밖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색깔은 반사된 광선이고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 냄새와 맛은 물질에서 떨어져 나온 분자들이고 촉감은 온도와 강도다. 그리고 기억돼 있는 의미들은 뇌피질의 흔적들일 것이다. 색즉공(色卽空)은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로와 대상을 합한 '12처'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다시 말해 일체(一切)다. 일체의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성장하고 유지되고 소멸하며(諸行無常), 애쓰고 있고(一切皆苦), 그 정체(我)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연결돼 있고(諸法無我), 알고 나면 자유롭고 조용하다(涅槃寂靜).

자유롭고 조용한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

음악 역시 그렇다. 멜로디는 생겨서 성장해 꽃피운 다음 사라진다. 항상 같지 않는 것이다(無常). 그리고 멜로디는 자신의 구성적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皆苦). 이 멜로디는 왜 아름다운가? 그 원인을 꼬집어내고 싶지만 그곳에서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無我). 여러 개의 음들이 얽혀 있고 그로 인해 멜로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이 파악되고 나면, 그 모든 음들로부터 자유로운 조용한 세계로 들어간다(涅槃寂靜). 음악을 다 듣고 나면, 소리는 없지만 무엇인가가 남아 있다. 기쁨이라고 말해야 할지, 환희라고 표현



해야 할지, 어쨌든 자유로운 조용함이 그곳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식(耳識) 하나만의 열반은 육식(六識) 모두로부터의 열반보다는 훨씬 쉽게 이뤄지고 이해될 수 있다.

12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시각 세계는 눈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들이다. 엉뚱하게 상상해 시각 세계의 본질을 파악해보자.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 하루에 백만년의 시간이 흘러간다면 아마도 눈에 보이는 사물은 소리처럼 생겼다 없어졌다 할 것이다. 우리가 절벽에 부딪치는 파도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것처럼 산이 생겼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게 될 것이다. 사계절의 변화는 음악의 '쿵작작' 처럼 짧은 리듬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흥미로운 광경이라 할지

라도 그 경치는 자연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일 따름이다.

인간의 의지와 상상력으로 빛은 가능성의 예술

그러나 음악의 세계는 자연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연주해서 소리로 만들어낸 세계다. 색(色)과 성(聲)은 미술과 음악이라는 예술의 장르를 만든다. 그러나 향(香)은 원예와 향수(香水)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생물학자들은 개미들이 향(香)으로 의사소통하며, 포유류의 경우 향은 짝짓기와 관련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미(味)는 맛의 세계일 것이다. 아직 예술이라는 개념 아래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요리 역시 맛의 예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의(意)를 통해 들어오는 의미는 말과 글의 세계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과 글에서 성(聲)과 색(色)이 빠지고 남는 부분이 의미일 것이다. 글의 본질인 의미는 의(意)의 통솔 아래 있다. 그것은 뇌에 기록된 흔적들이 불려나와 이뤄지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악은 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출발한다. 자연이 만들어놓은 것만큼이나 다양한 음들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음악은 성립한다. 재료의 근본인 실을 만들고 그 실로 비단을 짜고 문양을 넣고 재단해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또는 물질의 근원인 원자와 분자를 만들고 그것으로 흙과 나무, 공기와 물을 만들고, 조그만 시냇물로 시작해 점점 큰 강을 이루는 경치를 만들고 마침내 도도하게 흐르는 강을 만든다. 그 강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거대한 폭포를 연출해 내는 것이 음악이다.

음악은 최종 마무리까지 계획대로 만들어놓은 비단이고 옷이고 강이고 폭포일 수가 있는 것이다. 자연의 경치를 만들어나가는 최초의 단위가 만약 벽돌이라고 가정한다면 음악은 그 벽돌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조율이고 음계다. 그리고 악기는 그 최

소 단위의 벽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연주자는 공장과 시공회사의 운영자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음악이 갈 길을 정해주는 몇가지 조건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첫번째 중요한 갈림길은 음 체계다. 간단히 말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를 어떤 조율 시스템 아래 두느냐가 음악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악기를 만들어 사용하느냐가 또 다른 갈림길이다. 악기의 소리를 맑고 분명하게 하려는 경향은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도 된다는 신념이 있어야 악기의 개선이 가능하다.

음은 사라지지만 흔적은 남아

여기까지는 비교적 물리적 상
태의 문제이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음들을 연결시켜 점점 커지는 건축물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키면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개인의 재능이 문제가 된다. 서양 음악은 음체계, 악기, 음악의 전제 방법 등 모든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왔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그 역사는 10세기에 시작해서 20세기에 종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1950년 이후 서양의 고전음악은 종결됐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음악은 르네상스 이후 귀족들의 부유함과 취향이 발전의 바탕이 된다. 즉, 사회적 요인이 음악에 작용한 것이다. 그 후 바흐에서 베토벤에 이르는 시대는 귀족 사회가 음악가를 고용함으로써 음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기의 음악이 유럽 음악의 가장 중요한 몸체다. 시민 사회가 형성되면서 유럽의 클래식은 낭만주의를 겪고 20세기에 들어선다. 소멸 직전에 광채를 발휘하듯 드비시에서 스트라빈스키에 이르는 음악가들의 주옥같은 작곡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유럽의 클래식은 잠들어버린다. 죽은 것인지 잠에서 다시 깰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어쨌건 클래식 음악 역시 태어나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다음 사라져버리는 역사의 한 대상이 된 것이다.

음악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그 세계는 자연만큼이나 풍부한 세계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위대함이 없겠는가? 그 세계를 존재하게 만드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 마음 안에 그 세계를 만든다. 물론 다 듣고 나면 소리는 없어지지만, 곡이 끝나 모든 것을 체험한 후 우리는 열반정적(涅槃寂靜)을 느끼게 된다. 음악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순간은 음계의 벽돌로 쌓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로 그때다. ■

서우석 교수는 서울대 음대와 동 대학원에서 작곡과 음악 이론을 공부했으며 현재 서울대 음대 이론 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시와 리듬》 《음악과 이론(전4권)》 《말과 음악, 그리고 그 숨결》, 역서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미셀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양음악사》 등이 있다.